

뉴스홈 | 최신기사

## 임성재,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R 14위로 급상승

송고시간 | 2022-02-19 10:47

임순현 기자  
기자 페이지

『이를 연속 8언더파』 니만, 단독 선두...김시우 22위·이경훈 31위



임성재 1라운드 경기 모습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천200만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14위로 도약했다.

임성재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천322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때렸다.

전날 1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로 공동 61위였던 임성재는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중간합계 5언더파 137타를 기록, 공동 14위로 순위를 47계단이나 끌어 올렸다.



중간합계 16언더파 126타로 이를 연속 단독 선두를 유지한 호아킨 니만(칠레)과는 11타 차다.

2위 캐머런 영(미국·14언더파 128타)과도 9타 차로 벌어졌지만, 공동 4위(9언더파 133타) 애덤 스콧(호주)·조던 스피스(미국)와의 간격을 4타 차로 줄이며 톱10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임성재는 더CJ컵 공동 9위,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공동 8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공동 6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시즌 5번째 톱10 입상을 노린다.

10번 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한 임성재는 티 샷을 벅커에 빠뜨리며 위기를 맞았지만, 그림 같은 칩샷으로 공을 홀 30cm 옆에 올려놓은 뒤 버디를 잡아냈다.

이후 16번 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을 2언더파로 마친 임성재는 후반에서도 1번 홀(파5)과 2번 홀(파4) 연속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버디에 이어 6번 홀(파3)과 9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적어냈다.

1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22위에 올랐던 김시우(27)는 2라운드에서도 2언더파를 기록해 중간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22위를 유지했다.

임성재와 마찬가지로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시우는 전반을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이븐파로 마쳤지만, 1번 홀(파5)에서 6.5m 남짓한 이글 퍼트를 잡아내며 타수를 줄였다.

첫날 1오버파 72타를 때려 공동 77위에 머물렀던 이경훈(31)도 2라운드에서는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써내 중간합계 3언더파 139타로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아킨 니만의 2라운드 17번 홀 티샷

[AP=연합뉴스]

1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하나로 8언더파 63타를 때려 단독 선두에 나섰던 니만은 2라운드에서도 이를 연속 8언더파를 기록해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하나에 불과했다.

2019년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PGA 투어 첫 승을 거둔 니만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보기 없이 9개의 버디를 기록한 영이 중간합계 14언더파 128타로 단독 2위,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적어낸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중간합계 11언더파 131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는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4언더파 67타를 쳐 스코트과 스피스에 이어 6위에 위치했다.

시즌 첫 우승을 노렸던 세계랭킹 1위 온 람(스페인)은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5개를 기록해 2오버파 73타로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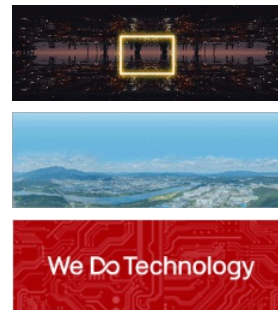
중간합계 이븐파 142타로 컷 탈락을 1타 차로 간신히 모면한 람은 전날 공동 22위에서 38계단 하락한 공동 6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 이재경(23)은 중간합계 3오버파 145타로 컷 탈락했다.

hyun@yna.co.kr

#### 관련기사

김시우, PGA 투어 제네시스 대회 1R 람-매켈로이와 공동 22위  
제네시스 후원 미국 PGA '2022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  
교통사고 1년 맞은 우즈 "복귀하겠지만, 안젠지는 나도 몰라"  
우즈가 불러 모은 세계 톱10...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17일 개막  
PGA투어 생애 첫 우승 세플러, 세계랭킹 9위로 도약  
2020년 신인왕 세플러, '골프 해방구'에서 생애 첫 우승(종합)  
'골프 해방구'에 이틀 연속 맥주캔 투척...오르티스, 홀인원  
샘 라이더 홀인원에 '골프해방구' 열광...2만 관중 '맥주캔 폭죽'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PGA #임성재 #김시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6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8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2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